

‘흑백요리사’ 열풍... 지역 외식업계 효과는 ‘글썸’

스타셰프 요리경연 ‘인기몰이’ 출연자 식당 예약·매출 등 증가
광주 일부 고급 식당들도 수혜
일반 식당 ‘남 얘기’ 침체 여전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출연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 예약률이 급등하는 등 침체된 외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에서도 일부 고급 식당들의 예약률이 상승하며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낮은 영세 상인들은 ‘해당 업계만의 이야기’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넷플릭스 공개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끈 ‘흑백요리사’는 스타 셰프와 숨은 고수들이 창의력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맛’으로 겨루

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으로, 방송 이후 외식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실제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 ‘캐치테이블’이 발간한 트렌드리포트에 따르면 흑백요리사 방송 공개 한 주 만에 출연 셰프의 식당 검색량은 전주 대비 74배 상승했다. 식당 저장 수는 1883.6% 증가했고 평균 예약률은 148.4% 증가했다.

광주지역 일부 고급 식당들도 예약률이 소폭 상승하며 ‘흑백요리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에 출연했던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은 아니지만 고급 요리를 경험해 보고 싶은 시민들이 지역 식당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남구의 한 파인다이닝 식당은 “방송 영향인지 평소보다 예약률이 확실히 늘고 있다”며 “기존 고객들이 아닌 새로운 손님들이 고급 식당에 관심을 가지게 됐

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의 한 코스요리 전문점도 “‘흑백요리사’ 이후 코스요리 매출이 30%가량 늘었다. 원래도 코스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꽤 있지만 예년보다 매출이 더 증가해 요리 프로그램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유행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다. 외식업 침체가 회복되려면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낮은 영세 상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동구의 한 중식집은 “마파두부 등 프로그램에 나온 특정 메뉴를 찾거나 주말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전과 큰 차이는 없어 방송 덕분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충성고객이 끝나 매출이 더욱 하락한 상태다”며 “일부 가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

업자들은 식자재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 가게 운영 제반 비용은 물론 고물가·경기 침체로 인해 여전히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예약 및 매출이 급등한 것은 관련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방송 이후 외식산업이 살아났다고 느껴지는 않는다. 지방은 특히 경기침체가 더 심각하니 외식업계가 살아나려면 내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흑백요리사’ 인기로 인한 외식업계 수혜 효과는 실재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인 만큼 이 같은 유행이 얼마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상인들 역시 소비자들 사이 경기불황에 지출을 줄이고 있어 당분간 외식업 침체에 청신호가 켜지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코로나 19 당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보복 소

비’ 심리로 급부상했던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고금리 기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여파로 줄폐업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전년 대비 12.8% 급증했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 따라 소비하는 심리, ‘남이 하면 나도 한다’는 모방 심리와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실제로 고급 요리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욕구 등이 함께 나타나면서 관련 업계가 수혜를 누린 것 같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반 소비자들 사이 관련 식당을 자주 찾기에 가격대가 높으니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고정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다운기자**



롯데마트, ‘국민맥주 2탄 에일편’ 출시 롯데마트는 지난 10일 ‘국민맥주 2탄 에일편(500ml)’을 단독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국민맥주 할인 행사를 진행, 6캔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캔당 18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국민맥주 1탄 라거편(500ml)’ 역시 동일한 혜택으로 캔당 162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 제공**

광주경총-조선대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정주형 인재양성 협력 등 협약

광주경총-조선대 협회는 지난 11일 힐리데이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와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 주력산업 분야 기업성장 및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산·학·연 협력사업 공동 개발 수행 및 노사상생 공동연구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공동 기획·운영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교류 △정주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김중성 조선대 총장은 “광주의 대표 경영자단체인 광주경총과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에 있는 기업을 알리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몰심

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산·학·연 협력 사업의 공동 개발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조선대의 우수한 인재에게 현장실습,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제 1141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7 11 12 21 26 35	2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4억5775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505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33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정의선 취임 4년...“현대차·기아 위상 변화”

글로벌 판매 ‘빅3’ 성장 등 견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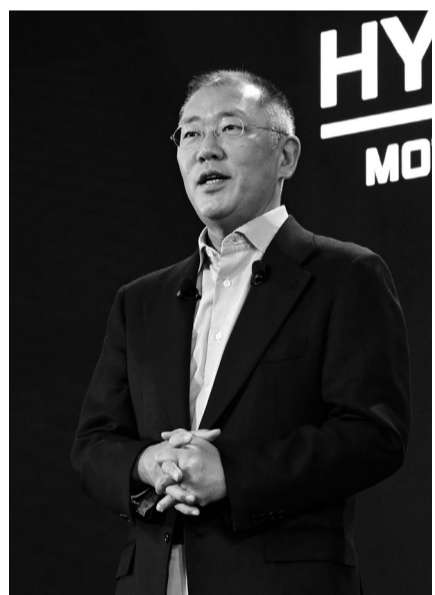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4년을 맞는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이후 ‘톱3’를 지속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는 창사 이래 처음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현대차그룹 위상 변화가 가장 확연한 부분은 판매다. 지난 2022년 처음 연간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이후 올 상반기까지 도요타, 폭스바겐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해 ‘톱4’에 진입했고, 올 상반기 역시 친환경차 16만대 등 총 81만여 대를 판매해 순위를 굳게 지켰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고 친환경차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미국에서 올 상반기 6만1883대의 전기차를 판매,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톱2’에 올랐다.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전년 동

기 대비 15.6% 증가한 49만대가량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도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수소차 시장점유율 1위로, 수소 모빌리티 리더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 회장의 미래 비전과 혁신 리더십이 수소, 로보틱스, AAM, 자율주행, SDV, PBV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AAM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 미 항공우주국(NASA) 등 글로벌 기업, 정부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AAM 시장 개화가 예상되는 2028년 시장 진입을 목표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소영 기자**

전남도-주한미국상공회의소, 투자유치 ‘맞손’

경제협력 강화 등 업무협약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협력

전남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최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진행, 경제협력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최승호 퍼시픽 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 하운식 GE 버노바 코리아 사

장, 이승준 퍼시픽 에너지 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한국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미국 기업과 전남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협력 증진 △전남도와 미국 간 기업의 수출활동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협력 △이밖에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분야 협력 등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 간 투자와 무역 증진을 위해 1953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다. 현재

국내의 기업 800여 회원사와 160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한국시장에 투자 진출할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통상 증진 정책을 제안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미래 지향적 산업 비전과 좋은 여건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며 “협약을 계기로 전남 기업이 세계 무대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미국 기업은 전남과 함께 더 크게 성공하는 동반성장의 생태계가 만들어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nli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